큰스님 수행한담

인과윤회 보입니다"

◇1976년 겨울, 해인사 조사전 앞에서. 오른쪽부터 혜암, 자운, 관응, 성철, 월산, 석주, 일타스님.

화두는 마치 열쇠와 같아 의문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근본 마음의 문을 열어 부처를 이루게 하는 방편입니다

지요. 스님은 참으로 밝은 거울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정화가 한창이던 때로 기억됩니다만 관청에 반강제로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율장에 대처승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가'의 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해명을 요구받았었지요. 그래서 율장에 있는 사바라이를 근거로 음욕계를 범하면 반석을 깬 것과 같고 대망어죄를 범하면 목을 벤것과 같아서 태다라나무심을 끊어버리면 다시 움이 나지않같아 어디선가 왔다가 어디론가 가 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 이럴 때 깊은 연(緣)을 심어놓아야 허생명사(虛生命死)를 면할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매일 3천배씩 7일동안 기도를 드린후 오른손 네손가락 열두 마디를 모두 연비하였습니다. 모든 미련을 연비와 함께 태워버리고 홀로 태백산 도솔암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솔암에서 동구불출하고 오후불식하며 장좌불와하기로 했습니다. 털이 끊어진다는 취모리검(吹毛利劍) 즉 대용맹심입니다.

나는 밤에 잠이 오면 경전을 소리내어 읽기도 했었는데 앉아서 졸망정 누워자지는 않는다는 각오였어요. 그런데 밤에 경전을 소리내어 읽다가 딱 그치면 밖에서 "스님 경전 더 읽었다. 가자 가자"하며 사람들이 흩어지는 느낌이 옵니다. 옛게송에도 "깊은 밤에 경을 읽으면, 보고 듣는 사람 하나 없어도 스스로 천룡팔부가 있어 귀기울여 듣고서 헤어지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루는 낮에 하도 졸려서 머리하고 아랫배를 사정없이 두들겨 괜 적이 있어요. "고인들은 공부할 때 잠오는 것을 경계하여 송곳으로 찔렀거늘 나는 왜 이리 방일한가. 옛 어른들은 하루해가 지나가면 다리뻗고 울었거늘 나는 왜 이리 방일한가"하면서 막 쥐어박았지요. 그날 저녁을 먹고 앉았는데 그야말로 성성적적이라 잠도 안오고 아주 생생한게 밤새도록 화두도 순조로웠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셈인지 창문이 자꾸 밝아져 열어보니 날이 훤히 밝았어요. 하루밤이 후딱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목단꽃이 봉오리를 활짝 피운 채 벙긋벙긋 웃고 있는 거예요. 웃음 소자와 꽃필 소자가 같은데 꽃이 나를 보고 웃으니 그게 바로 염화미소라 느꼈습니다. 기분좋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될 정도로 환희심이 차올라 밖으로 뛰쳐 나오니 햇볕은 따스하고 새들은 뒤에서 정겹게 지저귀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10년만 꾸준히 하면 위없는 삼매에 들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주위에서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강물 흘러가는 것을 보면 인간의 삶도 물 흐르듯 하나도 고정됨이 없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나그네길처럼 지나온 일생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인과윤회의 도리로 진행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치의 어김도 없이 말입니다. 요사이 세상이 혼란하고 몹시 어지럽지요.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 마음까지 각박해지고 어두워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어둡고 혼란할수록 마음의 문을 열어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야 합니다. 수행정진에 힘쓰면 마음이 공(空)해집니다. 공해지면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그 빛은 밖으로까지 뻗쳐나와 그 빛을 받는 주위 사람들까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상좌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내가 몸을 벗으면 바로 그 곳에서 화장을 해서 3등분하되 한움큼은 큰 고무풍선에 매달아서 허공에 실어보내고 또 한움큼은 찰밥에 섞어 산에 흩어주며 나머지는 강이나 바다에 뿌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새와 산짐승 그리고 물고기의 밥이 되도록 해 달라고요. 부도탑조차도 거추장스러워요. 생사가 둘이 아닌데 몸을 벗었다고 해서 요란스럽게 떠들 이유가 없습니다.

死生出沒(사생출몰) 月轉空中(월전공중) 東谷日陀(동곡일타) 西岸月明(서안월명)

나고 죽음은/달의 공전과 같네/동쪽 계곡에 해 저물면/서쪽 해안에 달 밝으리.

정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기사넘쳐 '다시 푸는 경서'와 '나의 수행일기' 쉽니다.

"세상 혼란할수록 마음열고 수행하세요"

마음 밝아지면 이웃까지 기쁘고 편안

고 바늘귀가 뚝 떨어지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는것과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일을 자주 겪다보니 나중에는 대중공사에서도 자꾸 불러서는 율장에 대한 얘기를 묻는 겁니다. 화두하나만 갖고 살다가 죽겠다고 결심했는데 엉뚱한 일에 휩쓸리다보니 안되겠다 싶어 오대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굳은 심지가 없이는 생사일대사를 해결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연비공양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없으면 세속적인 모든 생각이 뚝 끊어질 것이고 손가락없는 나에게 누가 사람노릇 시키지도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지요. 연비에 대한 마음도 점검할겸 여름한철동안 장좌불와를 했는데 어느날 문득 대관령꼭대기에 구름 한점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인생 무상이 뼈저리게 와 닿았습니다. "이 몸뚱이는 뜬구름과 마음깨치는게 정화지 절뺐는게 정화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십년간 가부좌를 틀어야겠다는 각오가 생겼습니다.

화두를 들고 공부를 했는데 화두참구법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마음을 잡는 공부입니다. 화두는 마치 열쇠와 같아서 의문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팔만사천 법문이 가득 차있는 근본 마음의 문을 열어 부처를 이루게 하는 도구요 방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두가 잘되지 않으면 부처님 명호를 외우듯 속으로 화두를 외우는 송(誦)화두라도 해야 하고 그게 계속되다 보면 생각으로 화두를 드는 염(念)화두가 됩니다.

염화두가 지속되면 일을 하면서도 말을 하면서도 화두가 또렷하게 들리는 간(看)화두가 되고 거기서 대용맹심을 발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면 참(參)화두가 되는데 참화두만 되면 깨침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참화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마, 즉 잠이라는 관문을 넘어서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칼 끝에 털을 놓고 훅 불면

무인년 하안거 해제법어

"조각배로 파도를 달리니…"

서옹스님 (고불총림 방장)

舉禾山垂語云習學謂之聞絶學謂之隣
過此二者是爲眞過
僧出問如何是眞過
山云解打鼓
又問如何是眞諦
山云解打鼓
又問卽心卽佛卽不問如何是非心非佛
山云解打鼓
又問向上人來時如何接
山云解打鼓

화산스님이 법어를 하였다.
"익히고 배우는 것을 들음(聞)이라 하고, 더 배울 것이 없는 것을 (도에) 가까움(隣)이라 한다. 이 두가지를 초월해야만이 참된 초월이라 한다."
스님이 다가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참된 초월입니까?"
"쿵 쿵 쿵더쿵!"
"무엇이 참다운 이치입니까?"
"쿵 쿵 쿵더쿵!"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쿵 쿵 쿵더쿵!"
"향상인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쿵 쿵 쿵더쿵!"

看語

串錦老漁懶就市하야
飄飄一葉浪頭行이로다.
喝

금빛물고기를 낀 늙은 어부는 저자에 갈 생각을 하여
가벼이 나부끼는 조각배로 파도를 한없이 달린다.
아 악!

"동쪽나무 쉬지않고 나부끼도다"

원담스님 (덕숭총림 방장)

一口吸盡西方水
一舌呑吐天地頤
東樹不休風吹搖
從來宗師坐不動

한 입으로 서방수를 다 마시고
한 혀로 삼키고 토하니 천지가 나타나는도다.
동쪽의 나무가 쉬지 않고 바람에 나부낌에
이로 좇아 모든 종사가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다.

"눈을 비벼 허공꽃 내지 말라"

법전스님 (해인총림 방장)

동산스님께서 해제날 대중에게 일렀습니다.

"해제대중들은 첫가을 늦여름에 여러분은 동쪽이건 서쪽이건 모름지기 바로 만리에 한치의 풀도 없는 곳을 향해 떠나야 한다. 그 만 리의 한 치의 풀도 없는 곳을 어떻게 가야하는가?"

동산스님 회상에서 여름을 난 한 수좌가 장사(長沙)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때 석상스님이 속복으로 도자기 굽는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좌를 보고는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동산에서 옵니다."

"동산화상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제자들을 지도하십니까?" 그러자 해제법문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석상이 한마디 하였습니다.

"문득 문을 나서기만 하면 그대로가 풀밭이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수좌는 다시 돌아와 동산화상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천오백명을 제접할 선지식의 말씀이다. 당나라 안에 그런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하고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이 공안으로 인하여 석상은 천하에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사실 동산노인은 입은 있어도 혀가 없어서 입을 열면 으레히 조도(鳥道)같은 현묘한 경지요, 석상노인은 흐린 물을 휘저어 맑음을 드날려서 없는 구절에서 없는 구절에만 치우쳐 사랑했습니다.

해제대중들이여!

여러분은 여름 끝 가을 첫머리에 여섯가닥의 길이 있으니, 한 가닥은 갈만하고 다섯가닥은 갈 수 없습니다.

첫째, 성스럽고 묘한 경지 위에서 눈을 비벼 허공 꽃을 내게하지 말 것이요, 둘째, 평탄한 경지 위에서 하인을 상전으로 오인하지 말 것이요, 셋째, 광채와 경계의 문턱에서 죽과 밥의 기운으로 재롱을 떨지 말 것이요, 넷째, 일없다는 갑옷 속에서 칼을 두려워하거나 화살을 피하지 말 것이요, 다섯째, 갈등의 구덩이 속에서 노란 것을 검다고 말하지 말 것이요, 여섯째 길은 여러분에게 가기를 허락한 길입니다.

이 한가닥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사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영자(검은 깨)와 감식초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불 로 화 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인 신선(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사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지 소나무임업장주(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b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 **【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053)628-9145/053)655-2227/011)808-8880
◐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대구여래원